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2022. 8.
Vol.68

NYPi Bluenote
블루노트 통계 Statistics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요약[1)]

조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이 불안정해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기의 실태를 분석하고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돕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데 있음.

조사대상 ▶ 이 연구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 이루어졌음.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제402004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2020년부터 조사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34세로 이하로 바뀌었음. 해당 법률에서 청년 연령은 19세에서 34세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져 이를 반영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음.

조사방법 ▶ 이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대면상태에서 1대 1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면 개별 면접방식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TAPI로 이루어졌음. 가구 방문 시에 대상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대면 개별 면접조사 대신 종이설문을 통한 유치조사도 병행해서 이루어졌음.

조사기간 ▶ 조사기간은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음. 5월과 6월에는 표본설계와 통계청 통계승인 절차, 원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절차가 이루어졌음. 본 조사는 7월 19일에 시작되었는데 통상 한 달 보름 정도 걸리는 조사 기간이 10월 29일까지 석 달로 두 배 이상 길어졌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중단사태로 인한 결과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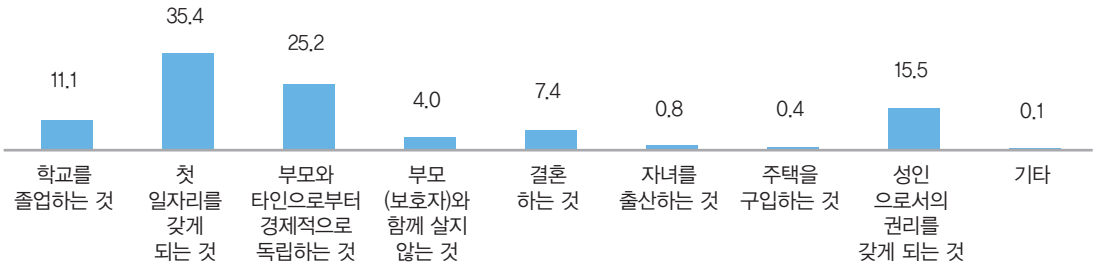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연구과제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사회 첫 출발의 의미

청년이 생각하는 성인으로서의 '사회 첫 출발'

- 청년 중 35.4%가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을 성인으로서의 '사회 첫 출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응답은 35.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25.2%로 높았음.
  -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응답은 15.5%였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11.1%로 뒤를 이음.

(단위: %)



*출처: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46). 2021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결과

그림 1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회 첫 출발'의 의미

'사회 첫 출발'에 대한 남녀별 인식 차이

-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하는 것'이라는 응답 비중(남:녀=8.2:6.5)이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응답 비중(남:녀=14.1:17.1)이 높았음.

'사회 첫 출발'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

- 18–19세는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는 응답비중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았고 20대 초반은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 20대 후반은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30대 초반은 '결혼하는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았음.

'사회 첫 출발'에 대한 교육수준별 인식 차이

- 연령집단별로는 고졸 이하는 '성인의 권리'를, 재학생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대졸 이상은 '첫 일자리'와 '결혼하는 것'을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게 응답함.
  - 고졸 이하는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응답과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대졸 이상은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1 대상별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회 첫 출발'의 의미 응답 결과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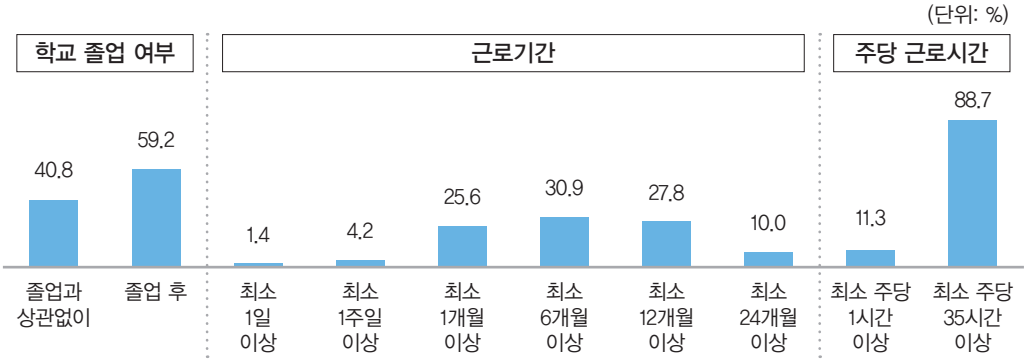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학교를 졸업 하는 것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 하는 것	부모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결혼 하는 것	자녀를 출산 하는 것	주택을 구입 하는 것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	기타
전체		(2,041)	11.1	35.4	25.2	4.0	7.4	0.8	0.4	15.5	0.1
성별	남자	(1,074)	11.2	36.5	24.5	3.9	8.2	1.0	0.5	14.1	0.1
	여자	(967)	10.9	34.2	25.9	4.3	6.5	0.6	0.3	17.1	0.1
연령	만 18–19세	(185)	19.8	30.2	29.8	2.7	3.8	0.0	1.4	11.8	0.6
	만 20–24세	(588)	12.2	34.4	26.2	4.1	5.7	0.7	0.4	16.2	0.1
	만 25–29세	(668)	9.4	38.0	23.1	4.6	6.9	0.5	0.4	17.0	0.1
	만 30–34세	(600)	9.3	35.2	25.0	3.8	10.8	1.6	0.1	14.1	0.0
학력	고졸이하	(565)	11.2	34.7	23.9	5.0	6.5	1.5	0.8	16.2	
	대학/대학원 재학	(451)	13.5	33.5	28.8	3.4	4.6	0.0	0.1	15.8	0.4
	대졸이상	(1,025)	10.0	36.7	24.2	3.8	9.3	0.9	0.3	14.9	0.0

*출처: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47). 2021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결과

2 첫 일자리의 의미

청년이 생각하는 '첫 일자리'

-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주당 최소 35시간 이상 일한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졸업 여부와 관련하여 59.2%가 '졸업 후'에 갖는 것을 첫 일자리로 응답함.
  - 근로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30.9%로 가장 높았고 '최소 12개월 이상'이 27.8%, '최소 1개월 이상'이 25.6% 순으로 응답함.
  - 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88.7%로 대부분을 차지함.



*출처: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48). 2021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결과

그림 2 청년들이 생각하는 '첫 일자리'의 의미

‘첫 일자리’에 대한 남녀별 인식 차이

- 남녀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주당 최소 35시간 이상 일한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첫 일자리’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

- 18–19세는 ‘학교 졸업과 상관없다’는 응답 비중과 ‘최소 24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았음.
- 20–24세는 ‘최소 6개월 이상’이라는 응답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음.
- 25–29세는 ‘학교 졸업 후’라는 응답이 61.2%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가장 높았음.
- 30–34세는 ‘최소 1개월 이상’이라는 응답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음.

‘첫 일자리’에 대한 교육수준별 인식 차이

- 고졸 이하는 대졸이나 대학 및 대학원 재학과 비교해 최소 ‘24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음.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은 ‘학교 졸업 후’라는 응답이 60.8%로 가장 높았고 ‘최소 6개월이나 12개월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대졸 이상은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표 2 대상별 청년들이 생각하는 ‘첫 일자리’의 의미 응답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졸업여부		근로 기간						주당 근로시간	
			졸업 상관 없이	졸업 후	최소 1일 이상	최소 1주일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최소 6개월 이상	최소 12개월 이상	최소 24개월 이상	최소 주당 1시간 이상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전체		(2,041)	40.8	59.2	1.4	4.2	25.6	30.9	27.8	10.0	11.3	88.7
성별	남자	(1,074)	40.9	59.1	1.1	3.7	26.0	31.2	27.9	10.1	11.3	88.7
	여자	(967)	40.6	59.4	1.8	4.9	25.1	30.5	27.7	9.9	11.3	88.7
연령	만 18–19세	(185)	44.8	55.2	1.0	6.2	23.4	29.9	28.9	10.6	13.9	86.1
	만 20–24세	(588)	42.2	57.8	1.6	3.9	22.2	33.9	28.6	9.9	12.7	87.3
	만 25–29세	(668)	38.8	61.2	1.7	3.6	26.6	29.4	28.5	10.3	10.0	90.0
	만 30–34세	(600)	40.4	59.6	1.1	4.8	28.4	29.9	26.0	9.7	10.5	89.5
학력	고졸이하	(565)	43.9	56.1	1.5	6.9	29.2	26.8	24.6	11.0	14.1	85.9
	대학/대학원 재학	(451)	39.2	60.8	1.1	2.9	20.4	34.4	32.1	9.1	12.4	87.6
	대졸이상	(1,025)	39.8	60.2	1.5	3.4	25.9	31.6	27.7	10.0	9.2	90.8

*출처: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49). 2021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결과

3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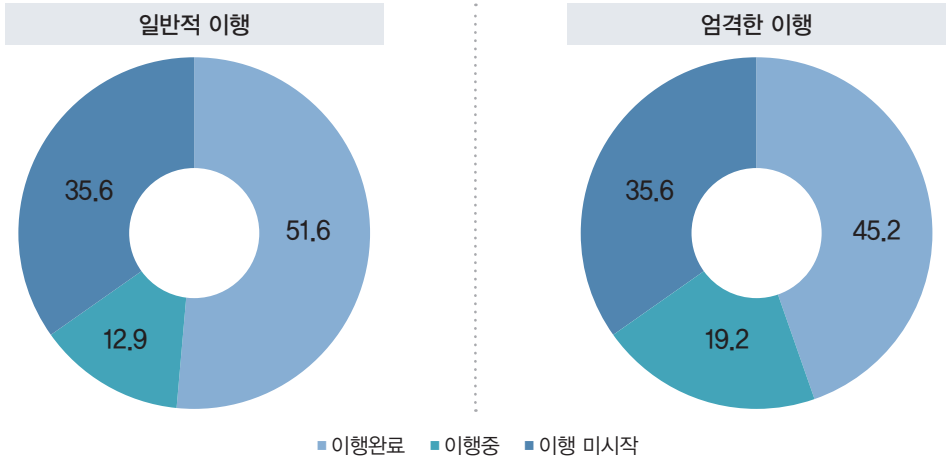
국제노동기구(ILO)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기준

- ILO(2009)는 학교–직업 이행을 일반적 이행과 엄격한 이행으로 구분해 제시하였음.
- 일반적 이행과 엄격한 이행
  - 일반적 이행은 정규직으로 이행했거나 계약직이지만 만족스러운 직업으로 이행한 경우, 비임금으로 만족스러운 직업으로 이행한 경우를 이행 완료로 정의함. 실업 상태이거나, 계약직이면서 불만족스러운 직업으로 이행한 경우, 비임금으로 불만족스러운 직업으로 이행한 경우는 이행이 진행 중인 경우로 정의함. 이는 불안정 이행으로 불리기도 함. 취업을 했음에도 이행 중이라고 정의한 것은 향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마지막으로 재학 상태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를 이행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함.
  - 엄격한 이행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여부로 이행 여부를 적용한 것임. 괜찮은 일자리는 정규직 여부와 더불어 평균 이상의 수입을 얻는 경우로 보다 엄격하게 이행 여부를 정의한 것임.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 여부

- 청년 중에서 정규직이거나 만족스러운 일자리로의 이행은 51.6%로 절반 정도였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의 이행 비율은 45.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함.
  - 일반적 이행으로 볼 때, 이행 완료는 51.6%였고 이행 중이 35.6%, 이행 미시작이 12.9%였음.
  - 엄격한 이행으로 볼 때, 이행 완료는 45.2%, 이행 중이 35.6%였고 이행 미시작은 19.2%였음.

(단위: %)



*주: ILO(2009)의 이행 기준 적용, 일반적 이행은 ① 이행완료(정규직 이행, 계약직이지만 만족스러운 직업 이행, 비임금으로 만족스러운 직업 이행), ② 이행 중(실업 상태, 계약직이면서 불만족스러운 직업 이행, 비임금으로 불만족스러운 직업 이행), ③ 이행 미시작(재학 상태,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으로 구분, 엄격한 이행은 정규직 대신 괜찮은 일자리(평균 이상 급여 제공을 추가)로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동일함.

*출처: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100), 2021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결과

그림 3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 여부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남녀별 차이

- 정규직이거나 만족스러운 일자리로의 이행은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엄격하게 정의한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행은 남성이 48.1%인데 비해 여성은 41.9%로 6.2%p 나 차이를 보여줌.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연령별 차이

- 연령별로 보면, 만18–19세는 이행 미시작의 비율이 높고 만25–29세부터 이행 완료 비율이 높아짐.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교육수준별 차이

- 고졸 이하는 정규직이거나 만족스러운 일자리로 55.4%만이 이행했으나 대졸 이상은 72.6% 이행해 7.2%p 차이를 보여주었고 엄격하게 정의한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행 역시 7.5%p나 차이(고졸:대졸=47.0:64.5)를 보여줌.

표 3 대상별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반적 이행			엄격한 이행		
			이행완료	이행중	이행 미시작	이행완료	이행중	이행 미시작
전체		(2,041)	51.6	12.9	35.6	45.2	19.2	35.6
성별	남자	(1,074)	52.1	13.6	34.3	48.1	17.6	34.3
	여자	(967)	50.9	12.1	37.0	41.9	21.1	37.0
연령	만 18–19세	(185)	4.9	4.2	90.9	4.5	4.6	90.9
연령	만 20–24세	(588)	26.8	16.0	57.3	22.2	20.6	57.3
	만 25–29세	(668)	65.4	14.8	19.8	55.6	24.5	19.8
	만 30–34세	(600)	74.0	10.4	15.6	68.0	16.4	15.6
학력	고졸이하	(565)	55.4	21.2	23.4	47.0	29.6	23.4
	대학/대학원 재학	(451)	0.0	0.0	100.0	0.0	0.0	100.0
	대졸이상	(1,025)	72.6	14.1	13.3	64.5	22.2	13.3

*주: ILO(2009)의 이행 기준 적용, 일반적 이행은 ① 이행완료(정규직 이행, 계약직이지만 만족스러운 직업 이행, 비임금으로 만족스러운 직업 이행), ② 이행중(실업 상태, 계약직이면서 불만족스러운 직업 이행, 비임금으로 불만족스러운 직업 이행), ③ 이행 미시작(재학 상태,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으로 구분, 엄격한 이행은 정규직 대신 괜찮은 일자리(평균 이상 급여, 정규직 혹은 비임금)로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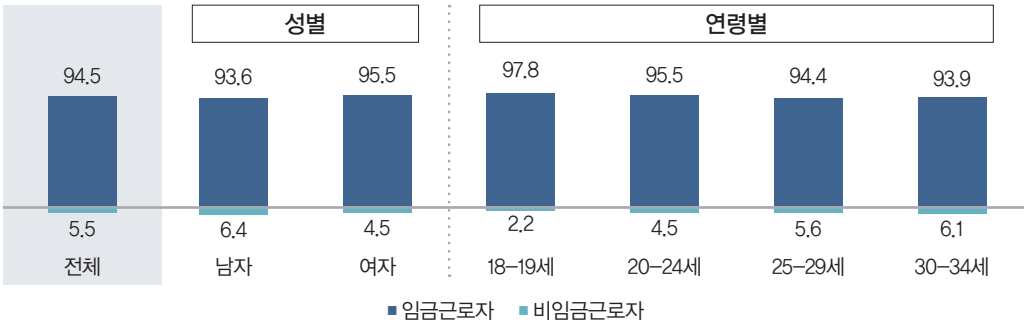
*출처: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101). 2021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결과

4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진 첫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94.5%로 대부분을 차지함.
- 성별로는 여자(95.5%)가 남자(93.6%)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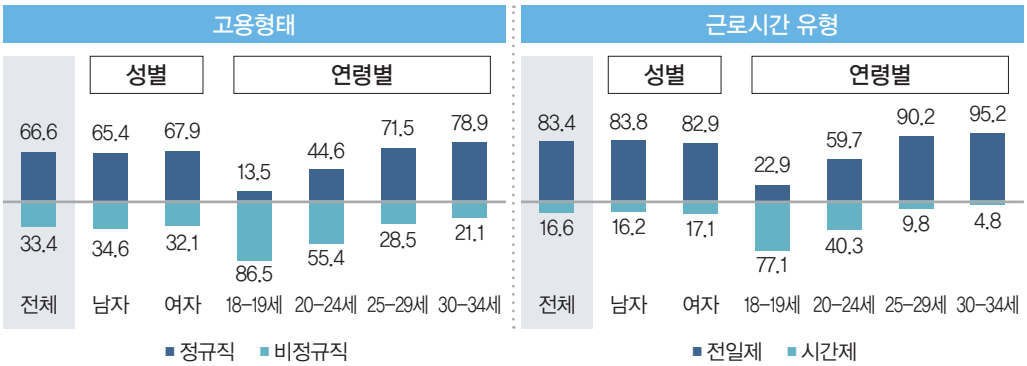
*출처: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54), 2021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결과

그림 4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지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의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은 66.6%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18–19세의 비정규직 비율이 86.5%를 차지함.
-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83.4%를 차지함.
  - 성별로는 남자의 전일제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18–19세의 77.1%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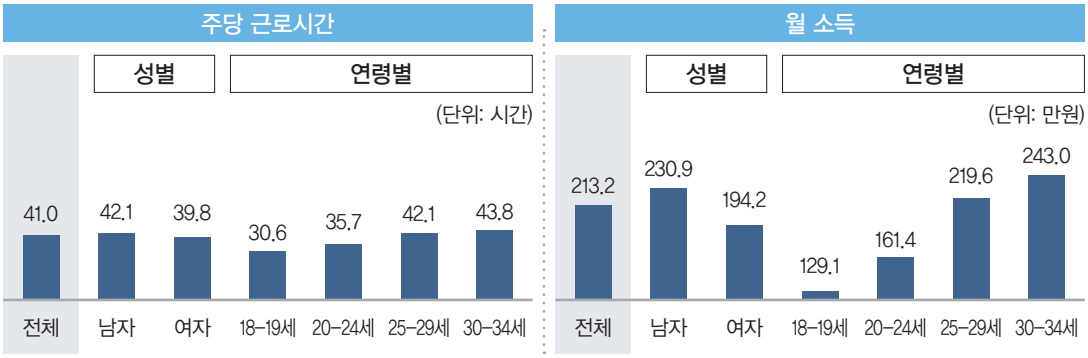


*출처: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56), 2021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결과

그림 5 첫 일자리의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첫 일자리의 직업과 평균 근로시간, 평균 소득

- 첫 일자리의 직업 대분류 중에서 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34.2%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0.5%로 가장 낮았음.
  - 서비스 종사자는 26.0%, 판매 종사자는 15.0%였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1.1%였음.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조사자는 6.2%였고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3.3%, 단순 노무종사자는 2.0%였으며 관리자는 1.4%였음.



*출처: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66). 2021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결과

그림 6 첫 일자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 평균 소득

- 첫 일자리의 주당 근로시간은 41시간이었고 월 소득은 213.2만원이었음.
  - 성별로는 남자의 평균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는데 근로시간의 차이 보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참고문헌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